(財)東亞文化硏究院 地表調査報告書 第55輯

남해 운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6. 6

(財)東亞文化硏究院
Foundation of East-Asia Cultural Institute

目　　次

Ⅰ. 조사개요 4

Ⅱ. 역사・고고학분야의 조사 5

1. 남해군의 자연・인문환경 5

2. 남해군의 역사적 환경 6

1) 남해군의 역사개요 6

2) 남해군 역사관련 문헌자료 12

3. 남해군의 민속과 문화행사 18

4. 조사대상지역 개관 20

5. 조사대상지역의 지명전승 22

Ⅲ. 조사내용 24

Ⅳ. 조사단 의견 24

참고문헌 25

도　　판 27

圖 面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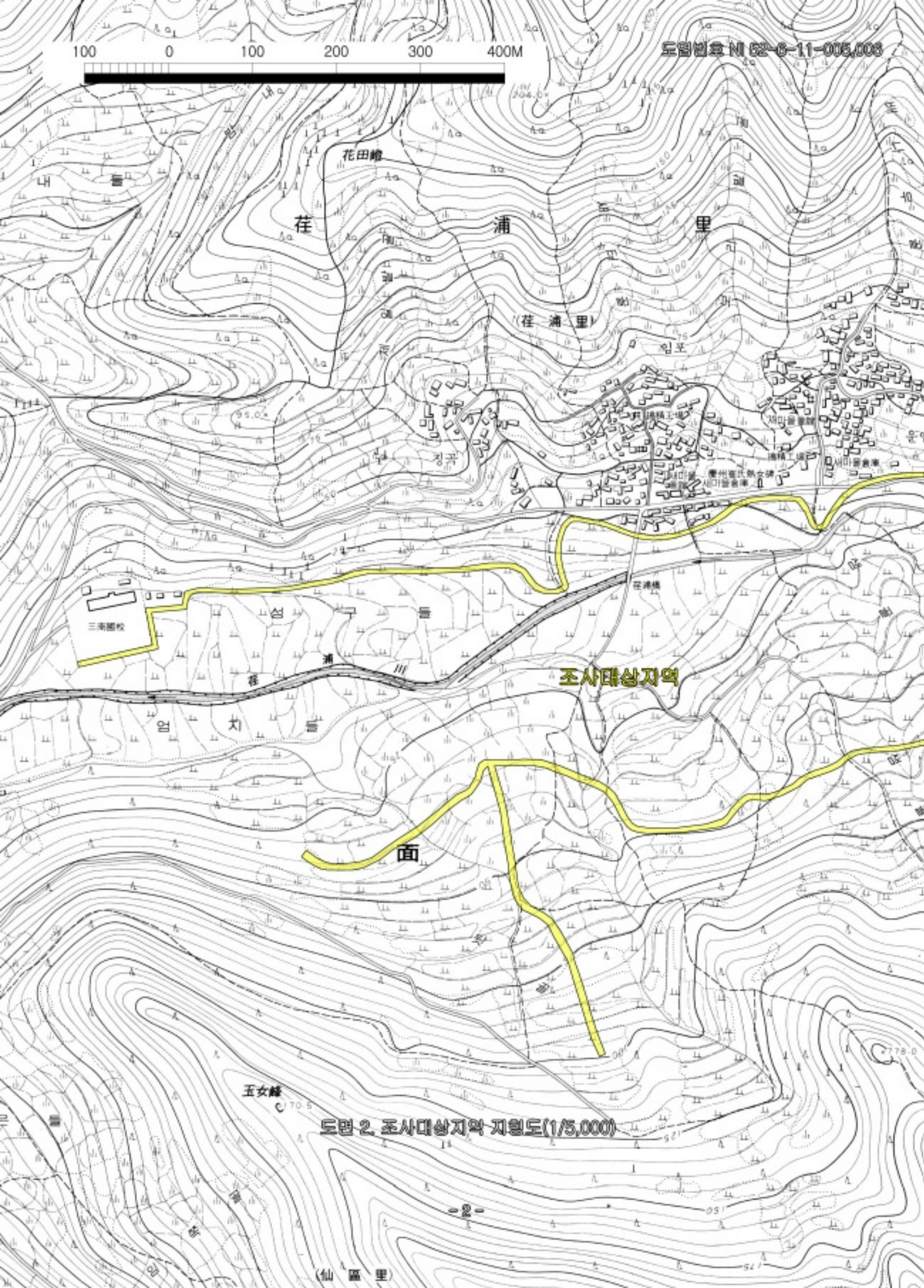
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50,000)·····1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2
도면 3.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3

圖 版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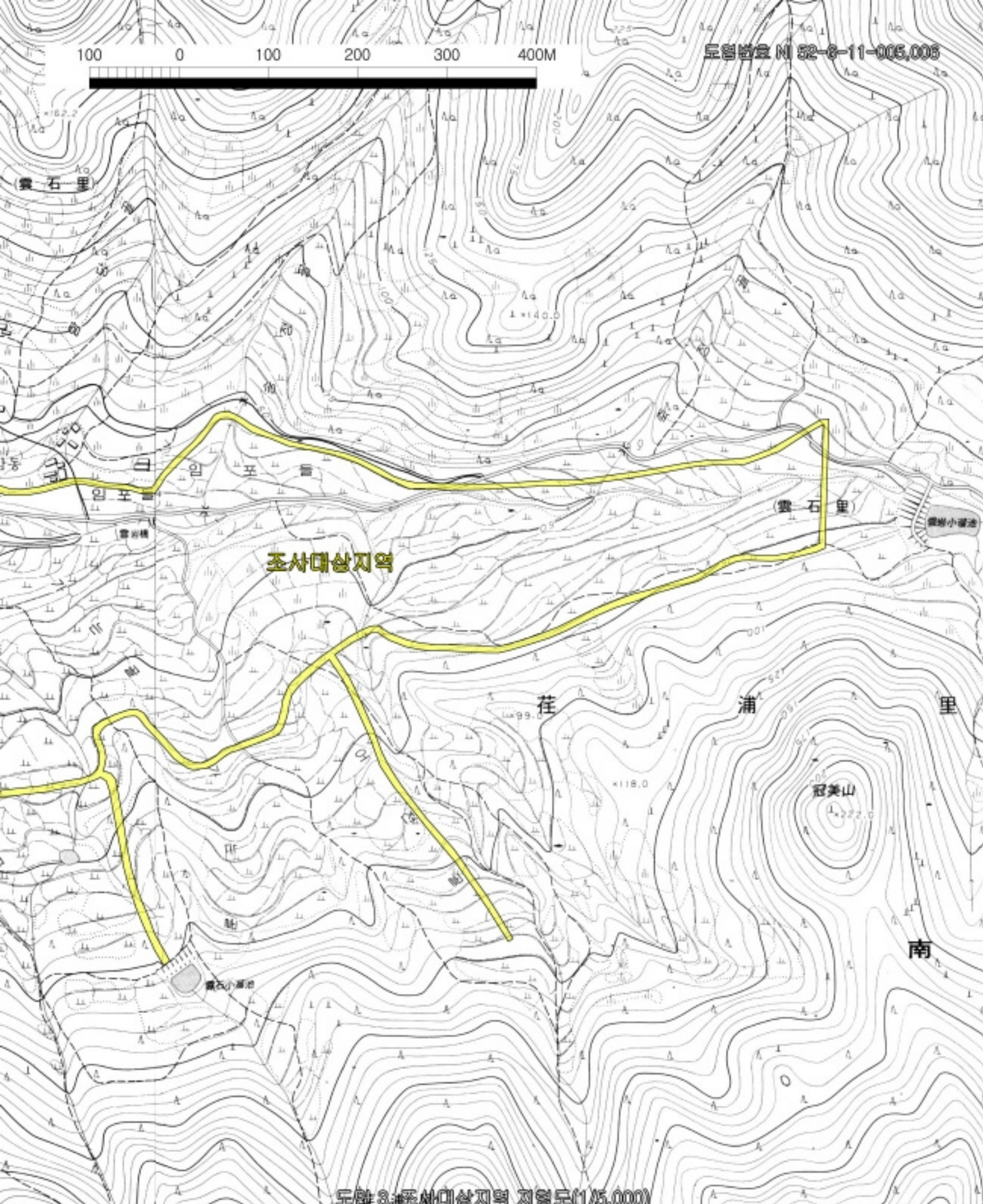
도판 1. 조사지역 원경(동→서)·····29
도판 2. 조사지역 남쪽사면 전경(북동→남서)·····29
도판 3. 조사지역 북쪽사면 전경(동→서)·····30
도판 4. 조사지역 북쪽 근경(동→서)·····30
도판 5. 조사지역 남쪽 근경(북동→남서)·····31
도판 6. 조사지역 전경(서→동)·····31
도판 7. 조사지역내 밀양박씨 선산 입구·····32
도판 8. 밀양박씨 선산 근경(북서→남동)·····32
도판 9. 조사지역내 곡부공씨 묘역 근경(북→남)·····33
도판 10. 조사지역 원경(동→서)·····33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도면 3.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Ⅰ. 조사개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국농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주관하는 '경남 남해 운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85,537㎡, 25,874평)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의거 당 사업구간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받아 사업계획수립시 사업구간내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 분포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장조사는 사업구간 전 구간 및 주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도보로 실시하여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헌조사는 고문헌조사 및 기존에 보고된 각종 발굴조사 보고서와 학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대상지역은 아래와 같다.

■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문화연구원 부원장)
- ◦책임조사원 : 배덕환(동아문화연구원 조사2과장)
- ◦조 사 원 : 김용탁(동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최희범(동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조사보조원 : 이해수(동아문화연구원 연구원)
  김정호(동아문화연구원 연구원)

■ 총조사기간 : 2006. 5. 15 ~ 2006. 6. 14
- ◦예비조사 : 15일
- ◦현장조사 : 5일
- ◦자료분석·정리, 보고서 작성 : 11일

■ 조사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일원

■ 조사면적 : 85,537㎡(25,874평)

■ 의 뢰 처 : 한국농촌공사 하동·남해지사

Ⅱ. 역사・고고학분야의 조사

1. 남해군의 자연・인문환경

남해군은 한반도 남부의 경상남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수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동경 128° 07′~127° 48′, 북위 34° 29′~34° 56′에 해당한다. 동단은 상주면 상주리 구돌섬(동경 128° 07′)이며, 서단은 서면 염해리 등대곶(동경 127° 48′)으로 동서간의 거리는 약 26km에 이른다. 그리고 남단은 상주면 상주리 세존도(북위 34° 29′)이며, 북단은 설천면 왕지리(북위 34° 56′)로 남북간의 거리는 약 30km에 이르며, 총면적은 357.33㎢에 달한다.[1)]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거제도, 진도 다음의 네 번째로 큰 섬으로써 1973년 남해대교의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비롯한 태조 이성계의 전설이 깃든 錦山(681m)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관광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는 곳이다. 인접하고 있는 市・郡으로는 동쪽으로 統營市, 서쪽으로 全羅南道 光陽市와 麗水市, 북쪽으로 河東郡과 泗川市, 남쪽으로는 대한해협과 접하고 있다. 전체적인 지형은 육지의 소백산맥 줄기가 남해안까지 뻗어 내려 이루어진 섬으로 望雲山, 錦山, 松登山 등 해발 600~700m의 비교적 높은 산들이 많으며, 하천은 笠峴川과 東山川 등 15개가 있고, 우리나라 3대 다우지 중의 하나로 水量이 풍부하지만, 지형적 영향으로 인하여 빗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대체로 규모가 적다. 이에 따라 평야도 작고 협소한 편이며, 서북부인 섬진강 하구에 大砂州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은 남해안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리아스(rias)식 해안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으며, 굴곡과 조석간만의 차가 매우 심하다. 해안선의 총 연장은 약 302㎞에 달하며,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기항지로써 풍부한 어족자원과 연근해어업의 전진기지로 수산물 집합지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본 섬 주위에는 3개의 유인도와 65개의 무인도가 산재해 있다.

남해군의 지질형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상남도의 전반적인 지질형태를 살펴보면, 그 분포상 대부분 경상분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 중생대 말기인 백악기에 형성된 慶尙系地層에 속하며, 대표적은 지층은 洛東統을 기저로 하여, 신라통과 불국사통으로 크게 구분되는 慶尙累層群이 속한다.[2)]

---

1) 남해군은 경상남도 전체대비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 昌原市(292.7㎢)・馬山市(329..7㎢)・鎭海市(110.66㎢)・統營市(233.89㎢)만이 南海郡 보다 작고 나머지는 면적이 넓다.

2) 慶尙累層群은 2억 3천만 년 전부터 6천 3백만 년 전까지 계속된 中生代의 지층을 대표한다. 중생대 말의 백악기에 쌓인 이 지층은 경상남・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이 지층이 쌓인 퇴적분지를 慶尙盆地라고 부른다.(國史編纂委員會,『韓國史1-총설』, 2002)

기후는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온난다우한 해양성기후를 보이고 있다. 남해의 따뜻한 동한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대체로 온난한 편이며, 일교차가 적어 아열대성 식물인 비자·유자나무 등이 잘 자라고 있다. 평균기온은 14.9℃이며, 1월 평균기온은 2℃, 8월 평균기온은 26℃이다. 연강수량은 약 1,500㎜ 정도이며,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세력과 해양성 한대 고기압세력의 영향으로 인하여 6월에는 장마전선을 형성하고, 7~8월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잦다.

남해군의 주산업은 수산업과 농업, 그리고 관광·휴양산업이다. 이 중 농업의 경우 우리나라 島嶼들 중에서 산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전체면적 중 약 68%가 임야면적이며, 농지는 대략 23%에 지나지 않는다) 계단식 논밭이 많이 개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남해군은 섬이지만, 1973년에는 남해대교가 육지인 하동군과 연결되었으며, 1980년에는 창선도와 남해 본 섬이 연결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되어 육지와 서로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수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로로도 남해안의 절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천혜의 관광·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남해군의 행정구역은 군청이 소재한 남해읍 서변리를 비롯한 '1邑 9面 220法定里'로 되어 있으며, 세대수는 21,339가구에 인구는 54,591명이다.(2003년 통계자료)[3]

2. 남해군의 역사적 환경

1) 남해군의 歷史 槪要

(1) 先史時代부터 三國(百濟·新羅)時代까지

선사시대 인류역사의 발전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지형과 기후 등 자연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 내지 군락을 이루고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남해안에 해당하는 서부경남과 전라남도 지역의 자연환경과 기후는 이에 잘 부합되고 있어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 조사되고 있다. 특히 서부경남의 경우, 이미 구석기에서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굴·조사된 바 있으며, 이 중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남강유역의 고고학적 발굴·조사성과는 매우 주목 받고 있다.[4]

---

3) 남해군청 <홈페이지 인구현황 통계자료> 참조.
한때 남해군의 인구는 약 13만 명을 넘어 선 적도 있으나, 현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가구수와 노년층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 및 핵가족화에 따른 변화 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4) 그 규모에 있어 국내 최대의 조사지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 하지만, 역사시대 이전인 舊石器時

그런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지역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아직 없다. 다만 지리적으로 남해안에 접하고 있어 온화한 기후의 혜택과 비옥한 토지, 그리고 풍부한 해산물 등이 있어 선사시대부터 이 지역에도 작은 세력이나 미약한 권력을 가진 邑落이나 部族 같은 정치적 세력이 터를 잡고 생활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왜냐하면 비록 구석기나 신석기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이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분묘양식인 支石墓의 경우에는 다정리·남변리·평현리 등 각지의 해안평야를 비롯하여 심지어 島嶼지역인 昌善島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어 최소한 이 시기부터는 이 지역에 권력을 지닌 집단이나 군집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청동기시대를 거친 이후 남해군과 관련된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이나 계급분화, 권력형성 등 삼국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나 구체적인 문헌기록 또한 극히 희소하다. 단지 3세기 중반 경, 한반도 남부지방의 여러 소국들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중국측 기록인『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와『三國史記』의 일부기록에서 인근 지역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인데, 현재로서는 이 단편적인 일부기록과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정해 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희소하나마 남아 있는 문헌과 남해군이 입지한 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고대국가나 정치적 세력의 존재여부를 추정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三國志』弁辰條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당시 남해군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지역 삼한 소국들에 대한 지명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현재 남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진주지역은 弁辰 12국 중의 하나인 '古淳是國', 북쪽으로 접해 있는 하동지역은 '樂奴國', 서쪽에 접해 있는 고성지역은 '古資彌凍國'으로 비정되고 있으므로 남해지역에도 이들 소국들과 관련성을 맺고 있는 세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三國史記』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삼국시대 이전, 경남에서 전남지역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의 해양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해양문화 집단인 '浦上八國'에 대한 기록이다. 이 포상팔국은 그 세력이 전남해안까지 뻗쳤으며, 당시 삼한사회를 거쳐 농경사회로 발전하고 있던 가야연맹체나 신라와도 충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은 포상팔국이 당시 이미 상당한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三國史記』에 浦上八國과 가야·신라의 대립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5]) 이 8國 중 현재

代부터 新石器·青銅器를 거쳐 三韓時代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아 온 국내 최대의 유적지임이 확인되어, 先史·古代의 이 지역 역사를 조명함에 있어 획기적인 자료가 제공되었다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 하다.

그 지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곳은 4國으로,[6] 특히 사천시 인근 지역이 '사물국'으로, 그리고 고성군 지역이 '고사포국'으로 비정되고 있으며, 모두 남해군과 인접하고 있으며, 이들 소국가들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라는 점은 남해군 일대에도 소국가 내지 주변지역 보다는 작은 세력이 존재하였거나, 또는 포상팔국은 아니더라도 이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교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남해군이 위치한 입지적 요인이다.

남해군은 과거부터 서·남해를 잇는 중요한 해상교통의 요지이다. 그러므로 이전 청동기에서 삼한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치적 세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곳에 정치적 집단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삼국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 이곳에 존재하였던 세력은 경상도 대부분이 그러하였듯이 초기에는 가야연맹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馬韓을 비롯한 弁辰韓 등 삼한의 통폐합 성장과정을 거쳐 삼국시대가 고착되는 어느 시점, 또는 포상팔국이 신라와 치른 竭火城 전투(이후 문헌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전쟁 후 상당한 타격을 입어 그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였거나 멸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고비로 가야연맹체나 신라에 편입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가야연맹체를 거쳐 신라나 백제의 권역으로 편입되었는지 밝혀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삼국이 완전히 정립된 이후 이 지역은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으며, 초기에는 백제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백제의 영역이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日本書紀』나『三國史記』에 기록된 인근지역과 관련된 기사 및 역사적 사실이 백제의 영역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우선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4세기적 상황은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을 정비하여,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영역을 넓히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백제의 近肖古王(재위 346~375) 때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그 세력이 중국, 일본에까지 미쳤다. 이 당시 남해군과 접해 있는 河東郡의 기록 중, 4세기 경 또는 그 이전에 이미 백제의 영역으로 예속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日本書紀』卷9 <神功> 50年 夏5月條(百濟 近肖古王 25년, 370)에 의하면, "多沙城(섬진강 하구 부근, 하동으로 비정)을 (백제에) 增賜하여 (倭와) 왕래하는 驛으로 하였다"라고 한 점,[7] 그리고『三國史記』에 晋州市와 관련된 기록에서도 처음에는 백제 '居列城' 또는 '居

5)『三國史記』卷二 <新羅本紀>第二 奈解尼師今 十四年條.
『三國史記』卷四十八 <列傳>第八 勿稽子條 참조.

6) '浦上八國'이란 남해안 지방인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에 나뉘어져 있었던 소국가들로 8개의 국가 중에서 그 위치가 비정된 곳이 4곳이다. 이를 살펴보면 骨浦國, 柒浦國, 古史浦國, 史勿國으로 지금의 마산만(또는 창원), 진동(또는 칠원), 고성, 사천에 각각 해당하고 있다.

7)『日本書紀』卷第九 <神功皇后> 五十年 夏五月條.
增賜多沙城 爲往還路驛.

列州'였던 것이 신라 文武王 때 신라의 장군 欽純과 天存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공략, 거열성을 함락시켜, 신라의 영토에 편입하여 '居列州'로 하였다라는 사실,[8] 그리고 다른 여러 서부 경남지역들이 이전까지 백제의 영역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남해군 역시 백제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한다.

(2) 統一新羅에서 近・現代까지

삼국시대까지 南海郡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었으며, 이곳에 신라 神文王이 비로소 '轉也山郡'을 설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의 역사적 사실들은『三國史記』를 비롯하여 여러 文獻들에 나타나고 있다. 먼저『三國史記』<雜志> 地理의 기록에 의하면, 轉也山郡을 통일신라 景德王 16년(757) 때 전국에 실시하였던 '9州 5小京'의 행정구역개편 및 정비와 함께, '南海(郡)'로 개칭하고 蘭浦縣(본래 內浦縣)과 平山縣(본래 平西山縣, 西平이라고도 한다) 2개의 屬縣을 관할하게 하였다.[9] 이 행정체계는 고려시대 초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아[10] 景德王 때의 행정개편은 별다른 변화 없이 통일신라 전반 및 고려시대 초까지 오래 동안 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통일신라말기와 후삼국으로 분열되었을 때에는 전라도 지역과 서부경남 일대가 甄萱이 건국한 후백제의 권역에 해당하였던 점으로 보아 남해군 역시 후백제의 권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후삼국의 분열을 재통일한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南海郡의 행정, 명칭변화 및 陞降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선초기의 문헌인『高麗史』를 비롯한『朝鮮王朝實錄』<地理志>에서부터 조선후기의『輿地圖書』나『慶尙道邑誌』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대에 따른 행정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초기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전국을 12牧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실시하였다.(成宗 2년, 983)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방豪族勢力들로 인하여 당시 중앙에서 지방을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처음으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의 독자적인 호족들을 통제하였던 점에 의미를 두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成宗 14년(995)에 지방행정체계를 다시 '4都護府 10道'로 개편하였으며, 顯宗 9년(1018)에, 전국을 '4道護府 8牧 56州郡 28鎭'으로 나누게 됨으로써 고려의 지방제도는 완성되었는데 이때, 비로소 통일신라 때 이루어 진 지방명칭과 행정체계에 대한 완전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체계와 명칭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남해

8)『三國史記』卷六 <新羅本紀>六 文武王 三年條.
二月 欽純天存領兵 攻取百濟居列城 斬首七百餘級……(하략).

9)『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참조.

10)『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南海縣 참조.

군은 고려의 지방행정체계가 완비되는 顯宗 9년(1018)에 縣令을 두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외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다.

한편 고려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였는데, 高宗 10년(1223)~恭讓王 4년(1392)까지 169년간 총 529회에 이를 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恭愍王代에서 禑王代에 이르기까지 총 493회로써 침략빈도가 가장 많았으니, 그 노략질과 규모 또한 점차 대담해져 남해안의 삼남지방은 물론 심지어 평안·함경지역, 그리고 내륙지방까지 침략하여 그 폐해가 高麗王朝의 기저를 위협하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남해군의 경우는 바닷가 섬이기에 그 폐해가 더욱 심하였을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정은『高麗史』<地理志>의 기록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恭愍王 7년(1358)에 倭(寇)의 폐해로 그 땅을 잃고 진주 任內의[11] 大也川部曲에 僑寓(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할 정도였고, 당시 屬縣이었던 蘭浦縣과 平山縣 또한 倭寇로 인하여 사람들과 가축들이 모두 없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12] 忠烈王 때에는 당시 固城縣에 합쳐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상복구 되기도 하였다.[13] 또한 禑王 10년(1384)에는 海道都元帥인 鄭地가 觀音浦에서 왜구를 크게 격파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고려시대 전반에도 통일신라 때와 마찬가지로 南海島 2개의 屬縣을 관할하며 '縣'체제로 유지되었다.

조선초기에 이르러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道 중심체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행정개편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남해군은 太宗 14년(1414)에 河東과 南海를 합쳐 '河南縣'이라 하였다가, 이듬해인 同王 15년(1415)에 河東縣과 다시 분리되어, 당시 진주 임내의 金陽部曲을 來屬하여 '海陽縣'으로 개칭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太宗 17년(1417)에 金陽部曲이 다시 진주로 예속되고, '南海縣'으로 독립되었다. 世宗朝에는 元年(1419)에 남해현은 昆明縣과 합쳐져 '昆南郡'으로 되었다가, 同王 19년(1437)에 昆南郡을 다시 나누어 '南海縣'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조선전기의 문헌인『世宗實錄』<地理志>에는『高麗史』<地理志>에 기록된 사실과 같이 당시 南海縣의 領縣이었던 蘭浦縣과 平山縣 두 속현에 대한 기록도 나타나는데, 고려말에 왜구로 인해 사람과 가축이 모두 없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람과 가축이 없고 다만 그 땅만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14]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이르기까지 왜구에 대한 폐해로 아직 사람들이 거주할 만 한 여건이 되지 못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외에『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조

---

11) '任內'란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12)『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南海縣 참조.

13)『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固城縣.
(상략)……忠烈王時 併于南海尋復舊……(하략).

14)『世宗實錄』卷一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昆南郡 및『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一 <南海縣>,『慶尙道邑誌』<南海邑誌> 등의 문헌자료 참조.

선전기 남해군과 합쳐진 곤남군의 호구수가 271호에 인구는 1,3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15] 그런데 燕山君 4년(1498)에 고을사람이 求禮民 裵目仁[16]과 더불어 謀叛하였기 때문에 縣監(從6品)으로 강등되었다가, 中宗 2년(1507) 다시 縣令(從5品)을 설치하였다. 이후 조선후기까지 별다른 큰 행정개편 없이 '縣'체제로 유지되었다. 英·正祖朝 이후에 세도정치로 인하여 심각한 정치의 부패 및 삼정의 문란 등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빈번한 농민항쟁이 발발하게 된다. 남해군 지역에서도 哲宗 14년(1863) 농민항쟁(일명 남해민란)이 발생하여 관아를 비롯하여 창고를 파괴하고 문서를 불사르는 사건이 있었다.

이 외에 남해군과 관련된 역사 중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역적인 특성과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조선의 鎭管體制 성립에 따른 해군기지로서의 역할이다. 世祖 12년(1466) 鎭管體制가 형성되었을 때, 당시 남해현은 진주진관에 소속되었으며, 수군은 薺浦鎭管 휘하의 平山浦萬戶가 통제하였다. 그리고 成宗 17년(1486) 미조항에 수군첨사진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나, 왜구로 인해 한때 폐쇄되었다가, 中宗 17년(1522) 복구되었으며, 정유재란 때인 宣祖 31년(1598)에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노량에서 승전(노량대첩)을 거둔 유서 깊은 고장이다. 둘째, 남해군은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 유배된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조선 中宗 14년(1519)에 己卯士禍로 金緣가 유배되어 <花田別曲>를 지었으며, 肅宗 15년(1689)에는 <九雲夢>을 지은 金萬重, 英祖 47년(1771)에는 柳義養이 유배되어 <南海聞見錄>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인근 지역들과 통합과 분리를 거치면서 縣·郡 등으로 陞降을 거듭하였지만, 대부분 '縣'단위의 행정체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조선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縣에서 郡으로 승격되는 행정구역 개편과 진주 관할의 彰善島(面)를 편입하는 등 郡勢가 크게 확대되면서 현재 남해군의 틀을 갖추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비교적 행정개편이 작았던 지역이었다. 조선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몇 가지 행정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말기인 高宗 32년(1895)의 '23府制'의 지방관제 개편으로 인하여 '晋州府 南海郡'으로 되었다가, 이듬해인 高宗 建陽 元年(1896)에 다시 '道體制'가 부활되면서 비로소 '慶尙南道 南海郡'으로 행정개편되었다. 그리고 光武 10년(1906) 진주 관할이었던 彰善島가 면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남해군으로 편입된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통폐합의 행정구역개편 때에도 이대로 유지되었다. 해방이후, 1973년 二東面의 葛島가 統營市로부터 편입되고, 1979년 남해면이 邑으로 승

15) 『世宗實錄』 卷一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昆南郡 戶口條 참조.

16) 문헌마다 '求禮人 裵目仁'에 관한 기록 중, 성명이 혹 '裵自仁', '裵仁目'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기록에서 '裵目仁'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것의 誤記인 듯 하다.

격하여 현재의 '1邑 9面'체제를 형성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정개편이 없었다. 이외에 중요한 사실로는 1963년 한려수도가 국립해상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73년 남해대교가 개통되어 육지와 이어졌고, 2003년 삼천포대교가 개통되어 육로가 열리면서 현재 남해군은 천혜의 관광지이자 휴양처로서 각광받고 있다.

2) 남해군 역사관련 文獻資料

이상에서 살펴 본 남해군과 인근지역의 명칭 및 행정구역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관련 文獻資料를 통해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史料 1 :『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도 역시 12國으로 되어 있다. 또 작은 여러 別邑이 있는데(이들 모두에는) 제각기 渠帥가 있다. (그 중에서) 세력이 가장 큰 곳은 그 우두머리를 '臣智'라 하고, 그 다음에는 '險側'이라 하였으며, 다음에는 '樊濊'가 있고, 다음에는 '殺奚'가 있으며, 다음에는 '邑借'가 있다…(중략)…弁辰古資彌凍國・弁辰古淳是國…(중략)…弁辰樂奴國(지금의 하동군 지역으로 비정됨)…(중략)…弁韓과 辰韓은 도합 24국이 된다……(하략).[17]

史料 2 :『三國史記』卷34 <雜志>3 地理1

南海郡은 神文王이 처음 설치한 轉也山郡으로,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다. 景德王이 명칭을 고쳤는데, 지금도(고려) 그대로 따른다. 領縣은 둘이다. 蘭浦縣은 본래 內浦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 平山縣은 본래 平西山縣(西平이라고도 한다)이었는데, 景德王이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18]

史料 3 :『高麗史』卷57 <志> 第11 地理2 南海縣

南海縣은 본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었는데, 신라 神文王이 처음 轉也山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南海로 하였다. (고려) 顯宗 9년(1018)에 縣令을 두었으며, 恭愍王 7년(1358)에 倭(寇)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진주 任內의 大也川部曲에 僑寓(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하였다. 屬縣은 둘이다. 蘭浦縣은 본래 신라의 內浦縣으로 南海島에 있었던 것을 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남해에) 來屬하였는데, 고려초에도 그대로 하였다. 후에 倭寇로 인하여 사람

17)『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중략)…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중략)…弁辰樂奴國…(중략)…弁辰韓合二十四國……(하략).

18)『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南海郡 神文王 初置轉也山郡 海中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蘭浦縣 本內浦縣 景德王改名今因之 平山縣 本平西山縣(一云 西平) 景德王改名 今因之.

들과 가축들이 모두 없어졌다. 平山縣은 본래 신라의 平西山縣(西平이라고도 한다)으로 역시 南海島에 있었던 것을 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南海郡 領縣으로 하였다. 고려초에도 그대로 하였다. 후에 倭寇로 인하여 사람들과 가축들이 모두 없어졌다.[19]

史料 4 :『世宗實錄』卷150 <地理志> 慶尙道 昆南郡

곤남군은 본래 昆明縣으로, 신라 때의 명칭은 알 수 없다. 고려 顯宗 戊午年(9년, 1018) 진주 임내로 예속하였다. 本朝(조선) 금상(世宗) 즉위 원년 己亥(1419) 御胎를 縣의 북쪽 20리에 있는 所谷山에 안치하고, 남해현과 곤명을 합치고 승격하여 昆南郡으로 하였다. 南海縣은 본래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신라 神文王이 처음으로 轉也山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南海郡으로 고쳤다. (고려) 顯宗 戊午年(1018)에 縣令(官)을 두었으며, 恭愍王 戊戌年(7년, 1358)에 倭(寇)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진주 임내의 大也川部曲에 僑寓하였다. 本朝(조선) 太宗 甲午年(14년, 1414)에 河東과 합쳐서 河南縣으로 부르다가, 이듬해인 乙未年(1415) 다시 河東縣을 설치하고, 진주 임내의 金陽部曲을 남해에 예속시켜 海陽縣으로 불렀다. 丁酉年(太宗 17년, 1417)에 金陽을 진주로 환원시키고, 다시 南海縣으로 하였다. 乙亥年(世宗 元年, 1419)에 昆明과 합쳤다. 蘭浦縣은 본래 內浦縣이었고, 平山縣은 본래 西平山이다. 이 두 현은 모두 바다의 섬으로 신라 때 지금의 명칭으로 하여 남해군의 領縣으로 하였으며, 고려에서는 그대로 따랐다. 倭(寇)로 인하여 사람과 가축은 이미 없어지고 다만 땅만 있을 따름이다…(중략)…호수는 271호에, 인구는 1,300명이다……(하략).[20]

史料 5 :『新增東國輿地勝覽』卷31 <南海縣>

동쪽으로 晋州界 경계까지 40里, 서쪽으로 바다까지 15里이며, 남쪽으로 바다까지 36里이고, 북쪽으로 露梁界까지 38里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1,045里이다.

［建置沿革］본래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신라 神文王이 처음으로 轉也山郡을

19)『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南海縣.
南海縣 本海中島 新羅神文王 初置轉也山郡 景德王 改爲南海郡 顯宗九年 置縣令 恭愍王七年 因倭失土 僑寓晋州任內大也川部曲 屬縣二 蘭浦縣 本新羅內浦縣 在南海島 景德王 改今名來屬 高麗初因之 後因倭寇人物俱亡 平山縣 本新羅平西山縣(一云 西平) 亦在南海島 景德王 改今名爲南海郡領縣 高麗初因之 後因倭寇人物俱亡.

20)『世宗實錄』卷一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昆南郡.
昆南郡 本昆明縣 新羅時稱號未詳 高麗顯宗戊午 屬晋州任內 本朝 今上卽位元年己亥 安御胎于縣北二十里所谷山 以南海縣合于昆明 陞爲昆南郡 南海縣 本海中島 新羅神文王 初置轉也山郡 景德王改爲南海郡 顯宗戊午 置縣令官 恭愍王戊戌 因倭失土 僑寓于晋州任內大也川部曲 本朝 太宗甲午合于河東 稱河南縣 乙未復置河東縣 以晋州任內金陽部曲 屬于南海 稱海陽縣 丁酉 以金陽還屬晋州復爲南海縣 乙亥 合于昆明 蘭浦縣 本內浦縣 平山縣 本西平山 右二縣 皆海島 新羅改今名 爲南海郡領縣 高麗因之 因倭人物俱已 但有土地耳…(중략)…戶二百七十單一 口一千三百……(하략).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 顯宗이 縣令을 두었으며, 恭愍王 때 倭(寇)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진주의 大也川部曲에 僑寓(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하였다. 本朝(조선) 太宗朝에 河東과 합쳐서 河南縣으로 칭하였다가, 뒤에 다시 河東縣을 설치하고, 진주의 金陽部曲이 來屬하여 海陽縣으로 불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金陽이 진주에 환원되고, 다시 南海로 불렀다. 世宗朝에 昆明縣과 합쳤다가 다시 이를 나누고 그대로 縣令을 두었다. 殿下(燕山君) 4년(1498)에 마을사람이 求禮人 裵目仁과 더불어 謀反하였기에 縣監으로 강등하였다.

〔郡名〕轉也山・海陽・轉山・花田・輪山이다.(觀風案에 있다)[21]

史料 6 :『燃藜室記述』別集 卷16 <地理典故> 州郡-南海

南海 : 성이 있다. 바다 가운데의 섬이다. 신라 때 轉也山郡이라고 하다가 南海로 고쳤다. 고려 때 縣을 두었다. (조선) 太宗 때 하동과 합쳐 河南縣이라고 하였다가 후에 나누어 海陽縣이라고 불렀다.(진주의 金陽部曲을 예속시켰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진주에 환속하였다) 世宗 때 昆明縣과 합쳤다가 다시 나누었다. 轉山・花田・輪山이라고도 한다. 7개 面이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는 1,045里이다. 蘭浦와(신라 때의 內浦縣이다) 平山은(신라 때의 平西山縣인데 西平이라고도 한다) 폐현이다.[22]

史料 7 :『輿地圖書』<慶尙道-南海>

〔晋州鎭管南海縣〕동쪽으로 진주계에 이르기까지 40里이며, 서쪽으로 해안에 이르기까지 15里이고, 남쪽으로 해안에 이르기까지 36里이며, 북쪽으로는 露梁에 이르기까지 38里이다. 京都로부터 1,045里 떨어져 있다……(하략).

〔建置沿革〕본래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신라 神文王이 처음으로 轉也山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 顯宗 때 縣令을 두었으며, 恭愍王 때 倭(寇)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진주의 大也川部曲에 僑寓(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하였다. 本朝(조선) 太宗朝에 河東과 합쳐서 河南縣으로

21)『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一 <南海縣>.
東至晋州界四十里 西至海岸十五里 南至海岸三十六里 北至露梁三十八里 距京都一千四十五里
〔建置沿革〕本海中島 新羅神文王 初置轉也山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顯宗 置縣令 恭愍王時 因倭失土 僑寓晋州大也川部曲 本朝 太宗朝 合于河東 稱河南縣 後復置河東縣 以晋州金陽部曲來屬 稱海陽縣 未幾金陽還屬晋州 而復稱南海. 世宗朝 合于昆明縣 復析之 仍爲縣令 殿下四年 縣人與求禮民裵目仁 相應謀叛 降爲縣監.
〔郡名〕轉也山・海陽・轉山・花田・輪山(觀風案).

22)『燃藜室記述』別集 卷之十六 <地理典故> 州郡-南海.
南海 有城 海中島 新羅轉也山郡 改南海 高麗置縣 太宗朝合于河東 稱河南 後復析稱海陽縣(以晋州金陽部曲來屬 未幾還屬晋州) 世宗朝合于昆明縣 復析之.
轉山 花田 輪山.
七面 距京一千四十五里.
蘭浦廢縣(新羅內浦縣) 平山廢縣(新羅平西山縣 一云西平)

칭하였다가, 뒤에 다시 河東縣을 설치하였으며, 진주의 金陽部曲을 來屬시켜 海陽縣이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金陽이 다시 진주에 환원되고, 다시 南海로 불렀다. 世宗朝에 昆明縣과 합쳤다가 다시 이를 나누고 縣令을 두었다. 燕山(君) 4년(1498)에 고을사람이 求禮民 裵目仁과 더불어 謀叛하였기 때문에 縣監으로 강등하였다가, 中宗 2년(1507) 다시 縣令으로 하였다.
〔別號〕轉也山・海陽・轉山・花田・輪山이다.(觀風案에 있다)[23]

史料 8 :『慶尙道邑誌』<南海縣邑誌>(1832년판)
〔建置沿革〕본래 바다 가운데의 섬이다. 신라 神文王이 처음으로 轉也山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南海로 고쳤다. 고려 顯宗 때 縣令을 두었으며, 恭愍王 때 倭(寇)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진주의 大也川部曲에 僑寓(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하였다. 本朝(조선) 太宗朝에 河東과 합쳐서 河南縣으로 칭하였다가, 뒤에 다시 河東縣이 설치되자, 진주의 金陽部曲을 來屬시켜 海陽縣이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金陽이 다시 진주에 환원되고, 다시 南海로 되었다. 世宗朝에 昆明縣과 합쳤다. 다시 이를 나누고 현령을 두었다. 燕山 4년(1498) 현감으로 강등하였다가, 中宗 2년(1507) 다시 현령으로 하였다……(하략).[24]

史料 9 :『大東地志』慶尙道－南海
〔沿革〕본래 海島였다. 신라 때 轉也山(轉伊山이라고도 전한다)이었는데,神文王 10년(670)에 군을 설치하였고, 景德王 16년(757)에 南海郡으로 고쳐(領縣이 2개로 蘭浦와 平山이다) 康州(지금의 진주시)에 소속시켰다. 고려 顯宗 9년(1018) 縣令으로 고쳤으며,(위와 같이 속하게 하였다) 恭愍王 7년(1358)에는 倭(寇)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진주의 大也川部曲(진주의 서쪽 40里 쯤에 있다)에 僑寓(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하였다. 本朝(조선) 太宗朝에 河東과 합쳐서 河南으로 칭하였다가, 뒤에 다시 나누었으며, 진주의 金陽部曲을 來屬하여 海陽으로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金陽이 진주에 환원되고, 다시 南海로 되었다. 世宗 元年(1419) 昆明縣과 합쳐 昆南으로 부르다가, 同王 19년

23)『輿地圖書』<慶尙道-南海>.
〔晋州鎭管南海縣〕東至晋州界四十里 西至海岸十五里 南至海岸三十六里 北至露梁三十八里 距京一千四十五里……(하략).
〔建置沿革〕本海中島 新羅神文王 初置轉也山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顯宗 置縣令 恭愍王時 因倭失土 僑寓晋州大也川部曲 本朝 太宗朝 合于河東 稱河南縣 後復置河東縣 以晋州金陽部曲來屬 稱海陽縣 未幾金陽還屬晋州 而復稱南海 世宗朝 合于昆明縣 復析之 仍爲縣令 燕山四年 縣人與求禮民裵目仁 相應謀叛 降爲縣監舊增 燕山四年 降爲縣監 中宗二年 復置縣令
〔郡名〕轉也山・海陽・轉山・花田・輪山(觀風案).

24)『慶尙道邑誌』<南海縣邑誌>.
〔建置沿革〕本海中島 新羅神文王 初置轉也山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顯宗 置縣令 恭愍王時 因倭失土 僑寓晋州大也川部曲 本朝 太宗朝 合于河東 稱河南縣 後復置河東縣 以晋州金陽部曲來屬 稱海陽縣 未幾金陽還屬晋州 而復稱南海 世宗朝 合于昆明縣 復析之 燕山四年 降爲縣監 中宗二年 復置縣令……(하략).

(1437) 다시 나누어 南海縣令으로 하였다. 燕山主 5년(1499)[25] 縣監으로 나추었다가,(고을사람이 求禮民 裵仁目(裵目仁)과 더불어 謀叛하였기 때문이다) 中宗 2년(1507) 다시 縣令으로 하였다.
〔邑號〕轉山・花田・輪山이다.[26]

史料 10 :『增補文獻備考』卷16 <輿地考>4 郡縣沿革2
(상략)……[晋州府]晋州・固城・鎭海・泗川・昆陽・南海…(중략)…21郡을 관할하였다……(하략).[27]

史料 11 :『增補文獻備考』卷17 <輿地考>5 郡縣沿革3-慶尙道
경상도는 본래 辰國의 땅인데, 뒤에 북쪽은 辰韓이 되고 남쪽은 弁韓이 되었다. 신라에서 두 韓의 땅을 아울러 차지하였으며, 삼국을 통합한 뒤 尙州・良州・康州의 3州를 두고 郡縣을 나누어 관할하였다…(중략)…고려에서는 3州를 합병하여 慶尙道라 하였으며, 本朝(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중략)…草溪・南海・固城…(중략)…右道에 속하였다.[28]

25)『輿地圖書』,『新增東國勝覽』,『邑誌』등에는 燕山君 4年이라 하였으므로 이 5年은 4年의 誤記로 보인다.

26)『大東地志』慶尙道-南海.
〔沿革〕本海島也 新羅轉也山(一云 轉伊山) 神文王十年 置郡 景德王十六年 改南海郡(領縣二 蘭浦平山) 隷康州 高麗顯宗九年 改縣令(屬隷如上) 恭愍王七年 因倭失土 僑寓晋州之大也川部曲(晋州西四十里) 本朝 太宗朝 合于河東稱河南 後復析之 以晋州之金陽部曲來屬 稱海陽 未幾金陽還屬晋州而復稱南海 世宗元年 合于昆明縣稱昆南 十九年 復析爲南海縣令 燕山主五年 降縣監(以縣人與求禮民裵仁目謀叛 中宗二年 復爲縣令.
〔邑號〕轉山・花田・輪山.

27)『增補文獻備考』卷十六 <輿地考>四 郡縣沿革二.
(상략)……[曰晋州] 諸晋州 固城 鎭海 泗川 昆陽 南海…(중략)…二十一郡……(하략).

28)『增補文獻備考』卷十七 <輿地考>五 郡縣沿革三-慶尙道.
慶尙道 本辰地 後北爲辰韓南爲弁韓 新羅併有二韓地 統合三國後 置尙良康三州分領郡縣…(중략)…高麗併三州爲慶尙道 本朝因之…(중략)…草溪 南海 固城…(중략)…屬右道.
[표1] 南海관련 기록
新羅 : 南海郡 神文王 置轉也山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 : 南海縣 顯宗爲縣 恭愍王時 因倭失土屬于晋州大也川部曲.
朝鮮 : 南海郡 太宗朝 合河東 置河南縣 後復析爲以晋州金陽部曲來屬 稱海陽縣 後還金陽于晋州復改今名 世宗朝 合于昆明後復析置…(중략)…今上(高宗)三十二年 改爲郡

[표 1] 南海관련 기록

新 羅	○ <南海郡> : 神文王 때 轉也山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하였다.
高 麗	○ <南海縣> : 顯宗 때 縣으로 하였으며, 恭愍王 때 왜구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진주의 大也川部曲에 임시로 寓居하였다.
朝 鮮	○ <南海郡> : 太宗朝에 하동과 합쳐 河南縣을 설치하였다가, 뒤에 다시 분리하였으며, 진주의 金陽部曲을 내속시켜 海陽縣이라 칭하다가 곧 금양을 진주에 환속시키고 다시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으며, 世宗朝에는 昆明과 합쳤다가 뒤에 다시 나누어 설치하였다.…(중략)…今上(高宗) 32년(1895) 군으로 하였다.

史料 12 :『嶠南誌』卷47 <南海郡>

〔沿革〕본래 바다 가운데 섬이었다. 신라 神文王이 처음으로 轉也山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하였다. 고려 顯宗 때 縣令을 두었으며, 恭愍王 때 倭(寇)로 인하여 그 땅을 잃자, 진주의 大也川部曲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李朝(조선) 太宗 때에 河東과 합쳐서 河南縣으로 칭하였다가, 뒤에 다시 河東縣이 설치되자, 진주의 金陽部曲을 來屬하여 海陽縣으로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金陽이 다시 진주에 환원되고, 다시 南陽으로 되었다. 世宗 때에 昆明縣과 합쳤다가 뒤에 다시 이를 나누고 縣令으로 하였다. 燕山(君) 4년(1498) 고을사람이 求禮民 裵自仁(裵目仁)과 더불어 서로 상응하여 謀叛하였기 때문에 縣으로 강등시켰다가, 中宗 2년(1507) 다시 縣令을 설치하였다.…(중략)…高宗 建陽 元年(1896)에 郡으로 하였고, 光武 10년(1906)에는 진주의 昌善島를 來屬하였으며, 大正 3년(1914)에도 그대로 하였다.

〔郡名〕轉也川・海陽・轉山・花田・輪山(風案을 살펴보라)・南海이다.

〔別號〕轉山・輪山・花田이다.

〔戶口〕호수는 32,145호에 인구는 92,758명이다.[29]

이상의 사료들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해군은 고대 삼한시대부터 존재하였던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며, 신라 神文王 이후부터의 사실들에 대해서는『三國史記』의 기록을 비롯하여 여러 文獻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발췌된 史料들을 통해서 보면 시대에 따른 행정체제의 개편과 명칭의 변경 및 역사적 사실 등을 단편적이나마 추정해 볼 수 있다.

29)『嶠南誌』卷之四十七 <南海郡>.

〔沿革〕本海中島 新羅神文王 初置轉也山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顯宗 置縣令 恭愍王時 因倭失土 移置晋州大也川部曲 李朝 太宗 合于河東 稱河南縣 後復置河東縣 以晋州金陽部曲來屬 稱海陽縣 未幾金陽還屬晋州 而復稱南陽 世宗 合于昆明縣 復析之 仍爲縣令 燕山四年 縣人與求禮民裵自仁相應謀叛 降爲縣 中宗二年 復置縣令…(중략)…高宗建陽元年 改爲郡 光武十年 晋州昌善島來屬 大正三年 因之

〔郡名〕轉也山・海陽・轉山・花田・輪山(觀風案)・南海.

〔戶口〕戶數 三萬二千一百四十五戶 人口 九萬二千七百五十八人.

3. 남해군의(조사대상지역 포함) 民俗과 문화행사

민속은 각 지역의 민간신앙・세시풍속・전통놀이・구비전승・제례행사 등 일상생활에서 전해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의미가 아주 광범위하다. 그리고 다양한 민속행위에는 그 지역만이 가지는 의식이나 특성, 생활양식 등을 내포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현재까지 각 지역에서 전승되는 行爲傳承만 하여도 100여 종 이상으로, 이중 널리 알려진 놀이로서 줄싸움, 매구놀이(農樂), 달집 태우기, 연날리기,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윷놀이, 地神밟기 등이 있고, 지역놀이로는 밀양시의 용호놀이, 횃불싸움, 병신굿놀이, 등불 띄워 보내기, 창녕군의 쇠머리대기(木牛戱), 자차놀이, 단오굿(文戶長 굿), 落水燈 놀이, 晋州・統營・固城・가산의 五廣大놀이, 동래・수영의 들놀음(野遊戱) 등이 있다.[30]

남해군에도 역시 지역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민속행위와 놀이가 전해져 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활자체와 관련된 민속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어업과 관련된 민속이 여러 가지 전해져오고 있다. 이 중 무형문화재의 의식과 놀이, 민요와 설화, 동제의 사례 및 문화행사를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1]

먼저 현재 남해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속은 아니지만, '남해안 별신굿'(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남해안 별신굿 자체가 거제도를 중심으로 통영일대와 남해안지방 일대에서 전승되는 마을의 판 굿으로, 해안지방이라는 특수성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통영시의 '남해안 별신굿보존회'에서 보존・전승되고 있다) 그 연원은 예로부터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일종의 '풍어굿'에서 비롯되었으나, 성격과 내용은 마을의 평안과 장수를 기원하는 '기원굿'의 성격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 짜임새는 굿의 시작을 알리는 '들맞이 당산굿'에서부터 액과 재앙을 소멸시키는 '띠뱃놀이'까지 모두 18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역인 남면(선구마을)에서는 '남해 선구줄끗기'(도무형문화재 제26호)가 전승되고 있다. 이 놀이는 원래 세시풍속의 한 종류지만, 내용은 민속신앙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연원이나 시작은 알 수 없으나, 매우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는 놀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통해 豐農과 豊漁를 기원했으며, 재앙(특히 해난사고 등)의 방지와 마을의 번영을 빌고 있다. 현재 <선구 줄끗기보존회(회장 정군삼)>가 대보름 행사로 전승하고 있으며, 준비과정에서 300여 명의

30)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慶南民俗資料集』, 1993.

31) 남해군에 전승되고 있는 民俗에 관한 자료는 너무 광범위하여,『韓國民俗大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慶南民俗資料集』(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9),『文化遺蹟分布地圖-南海郡』(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남해군, 2004), 남해군청 홈페이지 자료 등 여러 자료에 보고된 것들을 참고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인력이 동원되는데, 지역민 뿐 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놀이 방식은 아랫마을(남변)과 윗마을(북변)로 편을 나누어 줄 끗기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매・할배의 당산에서 각각 당산제를 모시는 것이 특징이다. 짜임새는 고를 메고 '당산제'를 지내는 것을 시작으로 '동굿'을 지내고, 마지막에 '달집태우기'로 액을 날려 보내는 것을 끝으로 하여 모두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의 '남해 화전농악', '石射(일명 石箭)', '覽勝圖', '상주 정월대보름 달맞이놀이' 등이 행해지고 있다. '남해 화전농악'의 경우, 그 연원이나 내력은 확실하지 않고, 단지 유배문화 설, 지역자생 설, 인근지방 전수설의 3가지 설로 추측될 뿐이다. 남해 화천농악의 대가인 상쇠 정창기 옹을 필두로 하여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주 개천예술제>, <밀양 아랑제> 등 수 많은 행사에서 상을 타기도 했다. '石射(일명 '石箭')'는 돌을 가지고 노는 놀이의 한 종류이며, 주로 추석 때 씨름대회와 함께 많이 행해진다. 그리고 '覽勝圖'는 그림놀이의 일종으로 남해읍 서변동 일대에서 행해졌다고 하나, 지금은 전승되지 않고 있다.[32] '상주 정월대보름 달맞이놀이'는 민족 고유의 전통 명절놀이가 축제로 이어진 경우이다. 원래 달맞이놀이는 각 지역이나 마을마다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왔으며, 넓은 범주에서 보면 상주 달맞이도 이 중의 하나이다. 이 놀이는 상주마을에서 매년 정월대보름 바닷가(해수욕장)에서 벌어진다. 놀이 내용으로는 대보름날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안녕기원제가 열리고, 사물놀이, 국악 공연, 널뛰기, 풍물한마당이 펼쳐지다가, 어둠이 오고 달이 뜨면 기원제와 풍어제를 시작으로 달집태우기가 이어진다. 소원을 적어 달집에 넣어 불사르고 달집 주위를 돌며 기원한다. 달집을 태운 뒤에도 여러 놀이가 이어진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오늘날 다른 곳에서는 거의 사라져 가는 쥐불놀이가 행해진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지역인 남면을 포함한 남해군 전역에 많은 민요와 설화,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 민요의 경우, 과거 육지와 떨어진 섬으로서 유배지였다는 지리적・사회적 영향으로 문화적인 혜택이 낙후되어 자연발생하게 된 지역특유의 내용이 대부분으로 민요와 잡가의 내용 또한 대부분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얽힌 농촌산간 서민의 애환을 소재로 하고 있다. 장르는 노동요・유상요・경세요・의식요・애환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들 민요의 내용에는 노동의 고달픔과 신성함이 배여 있으며, 청춘의 고독과 애환, 인생의 환희와 무상, 삶의 애환이 구구절절이 배여 있다. 그리고 대상도 자연숭배, 애정, 여가놀이, 가족・살림살이, 풍자와 해학 등 다양하나, 근원과 취지가 불분명하고 내용의 혼합 분류가 어려운 잡설과 잡가도 많다. 현재 구전되고 있는 주류는 대부분 노동요로 <정자소리>, <노젓는 소리>, <고기푸는 노래> 등이 있는데, 바닷가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농업

32) 기타 놀이방식이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慶南民俗資料集』(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 pp. 830~834)의 설명을 참고하면 된다.

노동요의 비중이 서로 비슷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설화나 전설의 경우는 주로 인물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대국산성(도기념물 제19호)에 얽힌 두 형제이야기'나 '무지개골에 얽힌 부부이야기'가 있다. 조사지역인 荏浦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설로는 <군자와 옥녀의 사랑>이야기가 전한다. 그 내용은 천상의 옥황상제가 먼저 군자를 이곳으로 보내고 난 후, 옥녀를 보내어 군자를 부양하게 하였는데, 이들은 운암산과 시루봉을 넘나들며 사랑을 나누다가 부부의 연을 맺고 다시 천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을 동쪽 군자가 머물렀다는 계곡을 '군자곡', 옥녀가 천상에서 내려 온 산봉우리를 '옥녀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밖에 마을 단위로 각종 洞祭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동제의 경우, 대체로 목신제・장승제・입석제・성황제 등이며, 老巨樹(木神)를 제사지내는 곳이 상당히 많다. 장승제는 석장승이 있는 곳에서, 성황제는 累石壇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특히 누석단은 질병과 재화를 막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곳으로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남면 홍현리에는 높이 2.5m, 둘레 1.5m에 달하는 입석(일명 '가천 미륵불'이라고 하며 마을사람들은 그냥 '미륵불'이라고 부른다)에 풍어를 기원하고 있다.[33] 그리고 바닷가 인근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여러 종류의 풍어제 및 기원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그 대상도 당산・당집・당목 등 그 종류와 의식이 다양하다. (주로 당산신을 모시는 당산제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축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화전문화제>는 매년 10월 2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펼쳐지며,(남해군민의 날) 남해문화의 총집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남해군의 고유 민속놀이와 예술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져 특색 있는 지역문화로 자리 매김하였다. <해산물축제>는 남해군 최남단에 위치한 미조면 일대에서 벌어지며, 아름다운 해안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재현하고 애국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이충무공 노량해전승첩제>도 개최되고 있다.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의 역사성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이곳에서 전사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노량해전의 재현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행해지고 있다.

4. 조사대상지역(남면) 개관

금번 조사는 '남해 운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로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남해군 남면 임포리 일원'이며, 조사대상 면적은 85,537㎡(약 25,874평)이다. 남해군은 조선후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정구역의 변화가 가장 적었던 지역 중 하나로 조선후기부터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지명들

3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이 많이 남아 있으며, 조사지역인 南面도 이 중 하나로 오랫동안 지명이 전승되고 있는 곳이다.[34] 이 지역의 인문・자연・역사적 환경 등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지리적으로 南面은 남해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 앵강만을 사이에 두고 상주면과 마주 하고 있으며, 서쪽과 남쪽으로는 여수만을 사이에 두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여수시)의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 남해읍과 접하고 있다. 주산업은 농・어업과 관광업으로 농경지의 경우, 총면적의 약 11%에 불과하나, 그나마 밭의 비율이 논 보다 조금 많은 편이다. 특산물로는 밭작물을 중심으로 알로에・유자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고구마와 치자는 남해군 전체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하천은 북쪽의 天皇山(395m)에서 시작되는 上加川이 남서쪽으로 흐르며, 남면 중앙으로 望崎山(340m)에서 시작된 五里川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 지역에 산재한 유적・유물로는 홍현리의 가천 미륵불과 설흘산 봉수대를 비롯하여 당항리의 석탑, 평산리의 평산포진성(일명 '民保城' 또는 '壬辰城') 등이 있다. 행정구역상 총면적은 43.48㎢로서, 면소재지인 당항리를 비롯한 9개 里와 26개의 행정마을을 관할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2,015가구에 인구는 4,536명(2006년 5월 현재 통계자료)이다.[35]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역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분묘양식인 지석묘와 유물들이 남해군 전 지역 및 부속 島嶼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이곳에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터전을 잡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헌기록상에 나타나듯이 신라 神文王이 남해군에 轉也山郡을 설치할 때,[36] 지금의 명칭인 '남면'이라 칭하고 執綱을 두고 남해군 관할로 한 것으로 보아(하지만 남면과 관련된 정확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지역의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별다른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는데, 조선후기 문헌인『輿地圖書』<南海縣> 坊里條에 당시 남면에 대한 위치가 기록되어 있으니, "남면은 관문으로부터 30리 쯤 떨어져 있다"고 하여,[37] 당시 (南海)邑治와 매우 가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慶尙道邑誌』<南海縣> 坊里條에는 당시 南面 관할의 모든 里에 대한 명칭과 거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사지역인 荏浦里는 "32리 쯤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38] 이 후 별다른 행정구역 개편은 없었으며,

---

34) 남해군의 面단위 행정구역명 변천관련은『경상남도 연구』의 도표(p,62)에 잘 정리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면 된다.(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35) 남해군청 <홈페이지 남면 통계자료> 참조.

36)『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참조.

37)『輿地圖書』<南海縣> 坊里條.
(상략)……南面 距官門三十里.

38)『慶尙道邑誌』<南海縣> 坊里條.
(상략)……南面 縣南…荏浦里 三十二里……(하략).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 통폐합으로 9개 洞里로 개편, 관할하게 되었다. 이 시기(1937년 경)에 편찬된『嶠南誌』<南海郡> 面洞里條를 살펴보면, 당시 荏浦里를 비롯한 南面 관할의 9개 里들이 기록되어 있다.[39] 이 행정체계는 해방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남면지역에는 金海 金氏와 密陽 朴氏가 집성을 이루고 있다. 남해지역의 성씨들에 대해서 조선전기 문헌인『新增東國輿地勝覽』<南海縣> 姓氏條를 살펴보면, "本縣에는 裵・金・白・陳・諸氏가 촌을 이루고 있으며, 蘭浦에는 鄭・朴・高氏가 촌을 이루고 있고, 平山에는 趙・裵・白・曹・和氏가 촌을 이루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40] 이후 조선후기의『輿地圖書』및『慶尙道邑誌』, 그리고 일제강점기 자료인『嶠南誌』의 <姓氏條>를 보면『新增東國輿地勝覽』의 성씨들을 기본으로 많은 來姓과 續姓들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41]

5. 조사대상지역의 지명전승

우선 조사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南面'이라는 명칭은 원래부터 남해군 관할지역으로 당시 "邑內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이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지역인 '荏浦(里)'는 원래 남면에 속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깨"가 많이 나서 '깨골' 또는 '荏谷'으로 불리다가,[42]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 통폐합으로 운암리와 사촌리를 합쳐 지금의 명칭인 임곡(리)이 되었다. 이 지역에 전승되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곳의 마을과 관련된 지명들로는, 먼저 이 지역의 명칭인 '荏浦(荏谷・깨골)'마을을 비롯하여, 임포마을 남서쪽에 위치한 '沙村'마을(다른 명칭으로 '모래치'로도 불린다), 사촌마을 남쪽에 위치한 '강촌'마을, 임포마을 북쪽에 위치한 '雲岩(里)'마을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외 임포리 지역의 골짜기・들・논・바위 등과 관련된 전승지명을 정리하면, 먼저 골짜기와 관련된 지명들로는, 임포 남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가는-골'을 비롯하여, 운암과 임포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 '고깡-모'가 있으며, 임포 동쪽으로 '군자-골'과 '남안-골'이라는 골짜기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대밭-골'은 재앵골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밤내-고랑'은 사촌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밤내-골'이 '깨그메'로 불리는 산의 동쪽에

39)『嶠南誌』卷之四十七 <南海郡> 面洞里條.
(상략)……南面 石橋里 德月里 上加里 平山里 竹田里 唐項里 荏浦里 仙區里 虹峴里.

40)『新增東國輿地勝覽』<南海縣> 姓氏條.
姓氏 本縣 裵金白陳諸村 蘭浦 鄭朴高村 平山 趙裵白曹和村.

41)『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慶尙道邑誌』・『嶠南誌』<南海(縣)郡> 姓氏條 참조.

42) '깨골'이라는 지명은 이곳의 <군자와 옥녀의 사랑>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당시 옥녀가 옥녀봉에 내려 올 때, 음식의 근원이 되는 '깨'를 가지고 내려와 이곳에 심자, 그 깨가 아주 잘 되어서 '깨골'이라고 불렀다.

위치하고 있으며, '수수대밭-골'은 임포 앞산에 있는 골짜기를, '시리메-골짜기'는 시리메 아래에 있는 큰 골짜기를, '어둔-골'은 군자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점-고랑'은 임포 앞에 있는 골짜기를, '함당-골'은 운암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각각 일컫는다. 그리고 '재앵-골'은 '솔정자'로 불리는 운암 동쪽에 있는 소나무 위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데, 옛날에 이곳에서 무기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산과 관련된 지명들로는 '갈미-봉'이 임포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름-산'이 사촌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깨끄-메'가 사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른 명칭으로 '까끄-메', 또는 '시리-메'로도 불린다. '덜뽕-덜'은 임포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데, 봉우리가 돌로 되었으며, 평평하여 놀기 좋다고 하여 붙은 명칭이다. 그리고 '매봉산'은 구름산 동쪽에 있는 산을, '성개-산'은 '성개'로 불리는 개천 옆에 위치한 산을 각각 일컫는다.

그 외 여·바위·논·들 등과 관련된 지명들이 전승되고 있는데, '가맛-영'은 임포리 서쪽에 있는 여를 가리키는데, 그 형상이 마치 "가마솥과 같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다. '너리-끝'은 사촌 서남쪽에 있는 바위로 바다에 뻗쳐 있고 배가 닿았다고 전한다. '대문-돌'은 임포 북쪽에 있는 '대문돌-꺼리'라 불리는 길에 있던 바위로 그 형상이 마치 "대문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고, 옛날에 시집가다 가마가 이 바위에 닿으면 시집가서 못 살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탕건-방우'는 임포 중앙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마치 "탕건과 같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고, '평풍-방우'는 임포 뒤쪽에 있는 바위로 그 형상이 마치 "병풍과 닮았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다. '가매-비렁'은 임포 서북쪽에 있는 바위를, '깨구리-방우'는 임포 동쪽에 있는 바위를, '끈덕-바우'는 사촌 동북쪽에 위치한 "꽃이 많이 피었다"고 하여 '꽃밭-등'으로 불리는 등성이에 있는 바위를, '농-비렁'은 임포 북동쪽에 있는 바위를 각각 일컬으며, '동구리-비렁'과 '북-바우'가 임포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논·들과 관련된 것들로는 사촌 동쪽에 '개-배미'로 불리는 논과 들이 있으며, 옛날에 이곳에 배가 들어 왔다고 전한다. '보리밭-골'은 운암의 뒤쪽 골짜기에 있는 들을 일컫는다. 이 외에 임포 입구에 있는 '진곡'이라는 고개를 비롯하여 임포 앞에 있는 '노릿-목'과 임포에서 홍현리로 넘어가는 '부짓-곡', 개배미 동쪽에 위치한 '볼-미기'로 불리는 고개들이 있으며, '밤냇고랑-다리'·'사촌교' 등의 다리도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지명들이 전승되고 있다.[43]

43) 이상의 지명에 대해서는 『한국지명총람8-경남편1』(한글학회, 2000) 및 <남해군청 홈페이지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기의 자료들을 참고)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지역은 경남 남해군 남면 임포리 일대로 조사대상면적은 총 85,537㎡(25,874평)에 달하는 '남해 운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이다. 조사대상지역인 남면 임포리 일대는 남면 서쪽의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 산지에서 발원한 임포천이 서쪽 사촌으로 경사를 따라 흘러내리는 계곡의 남사면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 산재한 유적·유물로는 홍현리의 가천 미륵불과 설흘산 봉수대를 비롯하여 당항리의 석탑, 평산리의 평산포진성(일명 '民保城' 또는 '壬辰城') 등이 있다.

조사는 사업구간 전 면적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농촌용수개발사업인 관계로 실제적인 조사대상구역의 폭이 약 1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또한 현재 조사대상지역은 논과 밭으로 이용되는 지역과 산지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지형적인 조건에 맞추어 조사구간 전체 범위를 도보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주변의 논과 밭에서 문화유적의 징후나 유물의 분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한 마을 주민들을 통한 탐문조사에서도 문화유적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Ⅳ. 조사단 의견

이상으로 '남해 운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구'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문헌 및 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요약하여 조사단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지역은 경사가 가파른 계곡부의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일대에 해당된다. 이러한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보를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문화유적과 유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지역은 본 연구원의 지표조사 실시 이전인 2004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지표조사[44]를 실시한 바 있으나 역시 유적과 유물의 존재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역은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육안에 의존한 지표조사의 한계상 공사 진행중에 지표조사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

4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문화유적분포지도-남해군』, 2004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復刻本)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燃藜室記述』
『慶尙道邑誌』
『大東地志』
『增補文獻備考』
『嶠南誌』
『三國志』<魏書> 東夷傳
『日本書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韓國民俗大觀 1, 2, 3』,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慶尙南道民俗集』, 1993.
권상노,『韓國地名沿革辭典』, 이화문화출판사, 1994.
田溶新,『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5.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1997.
韓國精神文化硏究院 편,『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上)·(下)』, 1999.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화수첩』, 역민사, 2000.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8-경남편 Ⅰ』, 2000.
國史編纂委員會,『한국사1-총설』, 2002.
慶南發展硏究院 歷史文化센터·南海郡,『文化遺蹟分布地圖-南海郡』, 2004.

圖版



도판 1. 조사지역 원경(동→서)



도판 2. 조사지역 남쪽사면 전경(북동→남서)



도판 3. 조사지역 북쪽사면 전경(동→서)



도판 4. 조사지역 북쪽 근경(동→서)



도판 5. 조사지역 남쪽 근경(북동→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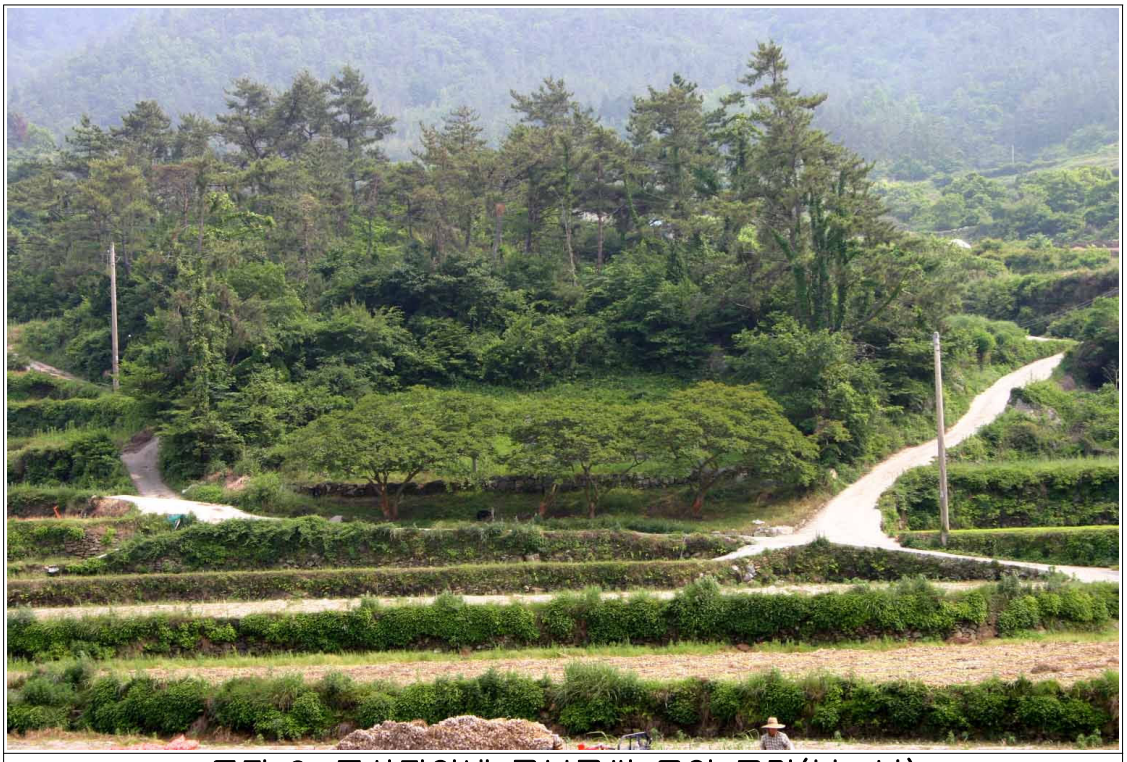
도판 6. 조사지역 전경(서→동)



도판 7. 조사지역내 밀양박씨 선산 입구



도판 8. 밀양박씨 선산 근경(북서→남동)



도판 9. 조사지역내 곡부공씨 묘역 근경(북→남)



도판 10. 조사지역 원경(동→서)

(財)東亞文化硏究院 地表調査報告 第55輯

남해 운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6년 6월 13일
발 행 일 / 2006년 6월 14일

編輯·發行 / (財)東亞文化硏究院

641-811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 B/D 401호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인 쇄 처 / 부 광 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 (055) 285-1834